

北 무인기에 용산도 뚫렸다...軍, 뒤늦게 진입 시인

비행금지구역 침투 대통령에 보고 대통령실·합참 청사 등 촬영 가능성 야당 의원 주장 부인 거짓말 판명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지역을 침범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5일 "전비대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지역을 침범한 지점이나 침범한 거리 등의 정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스치고 지나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은 대통령 집무실 부근의 특정 지점을 근거로 3.7km 반경으로 설정됐다.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하지만 당시 무인기가 서울 상공 약 2~3km가량에서 비행한 것으로 추정되어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합참 청사도 충분히 촬영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의 전비검열 결과 북한 무인기의 침범 당시에 레이더에 미확인 물체가 탐지됐으나 무인기로 평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정보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비행금지지역을 침범한 물체에 즉시 대응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으로 추정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위협과 무관한 새 대 등이 100여 차례 P-73 비행금지구역에서 식별됐다. 해당 무인기에 촬영장비 등이 장착됐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북한 무인기가 앞서 군의 발표와 달리 비행금지지역을 침범한 사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고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투했다는 분석은 사대 초기부터 제기됐으나, 군은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서울에 진입한 북한 무인기의 추정 항적을 근거로 비행금지지역에 침범했을 가능성은 크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일주일도 안 돼 결론이 뒤집힌 데 대해 군 관계자는 "작전 요원들이 보고한 사실에 입각해서 (침범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고 이번에는 조사하다 보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유가 무엇이든 지난해 공개적으로 야당 의원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군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새로운 대국민 입장 표명이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언론의 지적에 합참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지역을 침범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은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대통령실 일대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도 검토

군사합의 무효화 지시 연장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

대통령실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맞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데 이는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애초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이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방북해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그해 10월 23일 국회 동의

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와 재가만으로 두 합의서의 비준 절차를 마쳐 당시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실이 두 합의서 동시 무효화 카드를 고려하는 것은 내용이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평양공동선언에는 '9·19 군사합의의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남북 정상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선언)의 경우 국회 동의를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별도의 효력 정지도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9·19 군사합의와 평양공동선언을 전부 무효로 할지 일부만 무효로 할지는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문제로 보인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해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

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두 합의서를 무효화하기로 결단할 경우 즉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포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을 물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의 무효화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틀거나 시각매개물(전광판)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이에 따른 법률상 처벌 조항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해석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친윤 핵심' 권성동, 당 대표 불출마 선언

"주어진 자리서 최선을 다할 것"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3·8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5일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윤(친윤석열) 그룹 핵심으로 꼽히는 그는 "대통령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 공전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우려와 여론을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절실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일말의 오해도 없어야 하며, 당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차기 대표와 관련, "대권 욕심이 당의 이익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차기 대통령 출마에만 몰두해 온 사람이 당 대표를 맡으면, 필연적으로 계파를 형성할 것"이라며 당권-대권 분리를 요구했다.

또한 "차기 당 대표는 강력한 대야(對野) 투쟁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며 "대야 투쟁을 통해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를 통해 총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의원은 "대선에서 우리의 승리를 이끌었던 어젠다를 이어가야 한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한미동맹 강화, 원전 최강국 건설, 시민단체 비리 근절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호응이 높은 어젠다를 계속 발굴하고, 당의 대표적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향2길3(서향동)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하게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